



[산업] 사치와 가치 사이
非필수 가전
프리미엄 열풍
05



Life

[라이프] 롯데백화점
40년만에 본점 개혁
'리빙관 1공구' 인기
L2



“언어는 ‘학문’ 아닌 ‘문화’... 배우지 말고 익혀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잉글리시 카페 '조이랜드'

마재영 대표

회화 어려운 사람들 위한 영어카페
영어, 문화 공유 '즐거운' 수단으로
대화 나누며 자연스럽게 언어습득

우울증 겪으며 사람들 돕기 시작
사회 곳곳에 도움 되는 일 하고파

휠체어를 타고 800km 산티아고 순례 길을 38일 동안 달렸다.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의 아픔과 불편을 몸소 겪어보고 싶어 스스로 기획한 일이다. 휠체어 위에서 맞은 타지의 새벽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지난 2017년 스토리 펀딩을 통해 '산티아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그대로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았던 20대 마재영씨는 이제 서른이 됐고, 사업가가 됐다. 남을 잘 도우려면 우선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재영 대표가 올해 초 서울 당산동에 문을 연 잉글리시 카페 '조이랜드'를 찾았다. 유럽 뒷골목, 어느 작은 카페에서 만난 현지인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꿈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조이랜드의 첫 느낌은 그랬다.

◆“영어, 일단 막 내뱉어라”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즐거운' 과정, 생각을 공유하는 '즐거운'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 대표는 사명으로 '조이(JOY)'를 택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를 여학사업이 아닌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영어는 점수와 등급에 치중한 '학문'이 아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생경했다. 조이랜드를 단순히 카페 형태의 영어 학원이라고 여겼던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영어는 수단일 뿐, 제대로 결과가 되어서는 안돼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조이랜드는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나누



조이랜드 마재영 대표(왼쪽)와 튜터 이명아씨.

는 곳이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들은 먼저 가르쳐드려요. 대체로 최대 4명 안에서 영어로 대화가 이루어지죠. 튜터들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기만 해요. 지켜보면서 각자 어려워하는 표현들을 정리한 피드백지를 나중에 제공하죠.”

조이랜드가 가장 돕고 싶은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영어 초보자다. 쓰고 읽는 건 되는데 말은 도저히 안된다고 토로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렇지 않을까 싶었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경험에서 시작됐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한국을 떠났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15살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말이 터졌다. 그는 자신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노는 아이'였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죠. 놀기 위해 대화를 해야 했고, 그래서 영어를 하게 됐어요. 말을 잘하고 싶다면, 언어가 학습이라는 관념을 먼저 깨야 해요.”

마 대표는 조이랜드를 찾는 고객들에 '일단 막 던져라'라고 조언한다. “문법을 따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우선 내뱉어라. 그렇게 던지다보면 심리적인 장벽이 사라질 것이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세상

스무살 무렵,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몇 년간 땅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던,

끝없이 무기력한 기분을 아직 기억한다고 했다.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 무작정 군에 입대한 것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도 잡았을 무렵이었다. 한국인으로 국적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비국적자 신분으로 입대했다. “후회하지 않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후회했어요(웃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켜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제대하던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우울증과 같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스텔라 재단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였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돕다보니 역설적으로 내가 치유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돕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인가 깨달았죠.”

'산티아고 프로젝트'도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 기획한 일이다. “우울증 겪으면서 남자처럼 이겨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신체 장애도 감히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 못할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너무 많니까. 인류에 처럼 거창한 건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나도 좋고, 남들도 좋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영어를 즐겁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처럼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손사레 치는 그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냐고 물었다.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혼족, 혼밥, 혼영과 같은 트렌드가 생기는 게 안타까워요. 행복은 더불어 사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즐겁게 나눌 수 있는 밝은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괜찮아' 한마디가 필요한 거니까.”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조이랜드 카페 전경.



/조이랜드